

부록

부록1. 주민참여 사례

부록2. 지역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부록3. 1차 설문조사지

부록4. 2차 설문조사지

부록5. 회의록





부록 1. 주민 참여 사례

제1절 주민참여를 통한 한평공원 만들기 방법론

1. 대상지 선정

1) 대상지 찾기

■ 대상지 찾기의 주체

- 한평공원 대상지의 주체는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 기업 그리고 이용자인 주민들임

■ 대상지에 대한 선정

- 주민의 추천에 의한 대상지는 주변 상황을 고려한 대상지와 주민들과의 관계를 진단한 후 최종 선정
- 행정이나 기업, 전문가 등이 추천할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또 다른 민원에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선정은 지역주민들의 동의 전제

2)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 주민공감대 형성은 동네 골목에서 수박파티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학교마당에 걸터앉아서, 때로는 주민들을 일대일로 만나면서 진행하기도 함
-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한평공원 조성의 필요성 인식과 조성 방향을 개략적으로 설정



[그림 1] 주민과의 만남

2. 주민참여를 통한 디자인 결정

1) 디자인방향 설정을 위한 주민참여

- 한평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대단히 중요
- 설문조사나 워크숍, 축제, 삼겹살 파티 등 참여 방법은 대상지의 성격과 주민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
- 주민이 즐거워하며, 자신의 디자인 방향을 부담 없이 논의



[그림 2] 놀이를 통한 참여

2) 주민참여를 위한 자세

■ 주민에게 다가가라

- 주민참여가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지만, 몇몇 주민들의 요구를 전체 주민들의 이야기로 확대하기 위해선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 철산 한평공원은 1인 점포로 이루어진 상가였기에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안내판 설치 및 상가 내 신한은행과 협의하여 은행 직원들이 각각의 점포를 다니며 상인들의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성공하였음
- 인사동 한평공원 만들기가 골목길 전체의 화단 만들기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도 대상지 상인만이 아니라 이웃 상인들의 의견까지 귀 기울이고 조율해나갔던 결과임
- 인사동 상인들은 한평공원 만들기 사업을 이해하면서, 자발적으로 실외기를 정비하고 기꺼이 자신의 상점 앞을 화단으로 만드는 것에 동참



[그림 3] 안내판 설치(철산)

■ 놀이처럼 참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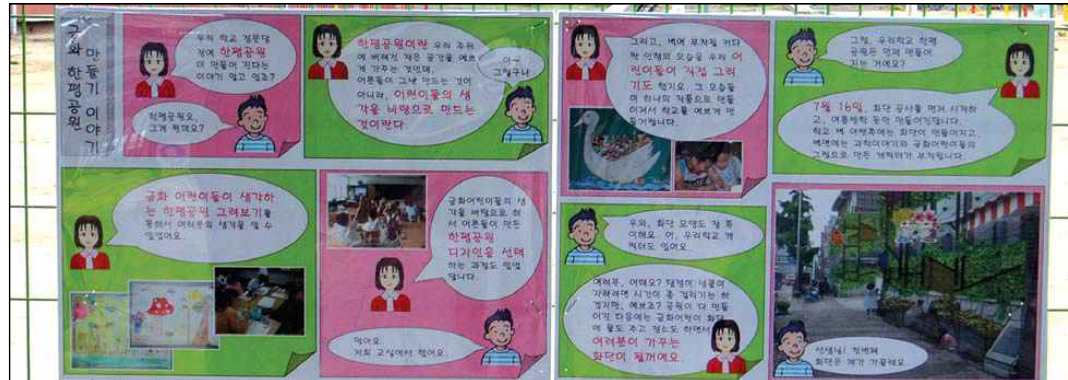
- 주민참여를 흔히 딱딱한 설명회나 공청회로 생각하기 쉬움
- 그리고 대부분의 참여프로그램이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
- 그래서 주민들은 참여프로그램을 매우 어렵고 귀찮아하지만, 참여라는 것은 즐거운 놀이처럼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부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내야 함
- 금호동 한평공원은 다양한 디자인 게임을 통하여 주제를 설정
 - 아이들은 대상지 사진을 찍고, 오려서 지도에 붙이고 문제점을 기입
 - 미아동 아이들은 찰흙과 수수깡으로 원하는 시설물을 직접 만들어서 설명하기와 친구의 놀이 모습을 일일이 촬영하여 빈 공간에 배치함으로서 디자인 방향을 알려줌
 - 연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축제의 형식을 빌려 통학로 문제를 표지판에 기입하여 위험지역에 설치했으며 옥수동 주민들은 골목길에 돛자리를 깔고 수박을 먹으면서 또는 동네 계모임에서 대상지에 대한 디자인도면을 가지고 부담 없이 의견 피력



[그림 4] 다양한 디자인 게임 참여 모습

■ 참자는 주민들을 깨워라

- 무관심한 주민들을 관심 있는 주민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성된 이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를 미리 공유하는 것
- 원서동 한평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 첫날인 일요일, 한평공원 조성을 모르는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하여 떡을 돌리고,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일일이 떡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한평공원 공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늦잠 자던 주민들이 주섬주섬 공사장에 나와 한마디씩 의견 논의
- 부천 고강동 테마공원은 방치된 나대지에서의 작은 축제로 '변화의 필요성'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었으며 금화초등학교 한평공원은 조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만화로 작성하여 학교 담에 부착



[그림 5] 만화로 표현한 금화초등학교 한평공원 조성과정

■ 우군(友軍)을 많이 만들어라

- 한평공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야만 추진 가능
- 가회동사무소는 한평공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그리고 한평공원이 조성된 이후,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 옥수동과 수색동 학원들은 어린이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할애
- 둔촌 한평공원은 강력한 반대를 피력한 관리소장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조성

- 한평공원 사업에 동의한 후 안내판을 들고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모우고, 직접 시멘트를 사다가 바닥포장을 새로 한 사람이 바로 관리소장임

■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 초기 한평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은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아이들이 직접 심은 꽃씨들이 파헤쳐지는 수난도 당하였음
- 소외된 주민들의 불만도 표출
-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주민이 하니깐 형편없네. 행정이 하면 한 달 만에 더 잘 만들 수 있는데”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으며, 어느 지역의 시민단체는 돈도, 전문가도, 행정 지원도 다 구비되어 있으니 주민참여 방안만 알려달라고 요청
- 한평공원 만들기는 근사한 외형을 추구하지 않으며, 판에 찍듯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리 저리 동네를 옮겨 다니는 것은 더더욱 아님
- 작은 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어나가는지를 함께 하려는 것임

■ 시스템을 구축하라

- 한평공원 만들기 사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한평공원을 조성’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행정의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고민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함
- 그렇지 않으면 과거 ‘행정주도 새마을 운동’과 동일함
- 주민들은 모든 과정의 주인이며, 시민단체는 주민참여 방안 기획 및 적용, 전문가는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디자인 및 시공, 행정은 대상지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 절차 지원 등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의 역할분담 및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을 함께 습득할 수 있음

3) 본격적인 디자인 과정

- 디자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며, 전문가는 주민들의 정제되지 않은 의견을 가지고 주민의 뜻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함
 - 때로는 주민들이 놓쳐버린 내용을 현장 답사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로 돌려줄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한평공원 조성 가능



[그림 6] 전문가들의 디자인 방향 논의 모습



[그림 7] 디자인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1) 디자인 확정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례

- 내가 꿈꾸는 놀이터를 스스로 그려보기
 - 아이들이 놀이터를 꿈꾼다면 어떤 놀이터일까. 놀이터 디자인을 할 경우 아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놀이터를 그려보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참여프로그램임
 - 2006년 수원 영통구 매탄2동의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과정에서 진행한 놀이터 디자인장터는 아이들이 놀이터 현장에서 자신이 맘에 드는 놀이기구를 골라 놀이터를 꾸며보는 디자인 게임의 성격을 띠
- ① 놀이기구 장터 개설
(장터에서는 그네, 미끄럼틀 등 11개 놀이기구 가게가 운영되고, 각 가게에서는 놀이기구별로 8개씩의 서로 다른 디자인안을 팔고 있음)
 - ② 아이들은 2인 1조로 한 팀을 이루고, 팀별로 1만원의 돈을 받음

- ③ 아이들은 11개의 가게를 둘러본 뒤, 서로 의논하여 총 10개의 놀이기구 구입
(각 팀은 놀이기구를 골고루 살수도 있고, 미끄럼틀과 그네를 집중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음)
- ④ 가게는 아이들이 돈을 지불하면 해당 놀이기구 모양의 스티커 판매
- ⑤ 스티커를 받은 아이들은 놀이터 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신의 놀이터 이름을 정해 기입
- ⑥ 놀이터 판이 완성되면 각 팀별로 간단히 내용을 발표하고, 만들어진 놀이터는 전시하여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



[그림 8] 디자인카드를 구입해 놀이터판을 꾸미는 모습

■ KJ법

-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로 묶어 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론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용
 - 참가자 개개인이 자신이 관찰한 결과 또는 사고한 결과(정보)등을 각각 작은 카드에 짧은 문장으로 기입해서 활용하는데 그 방법의 전개순서는 다음과 같음
- ① 참가한 주민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각자 한 가지씩 발표
 - ② 주민들이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발표를 통해 서로 공유
 - ③ 참가한 주민들을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눔
 - ④ 각 소그룹은 개인별로 발표한 모든 생각을 카드에 기입하여 생각마다 한 장의 카드 만듦. 카드는 가급적 한 줄로 표현하여 정보의 내용이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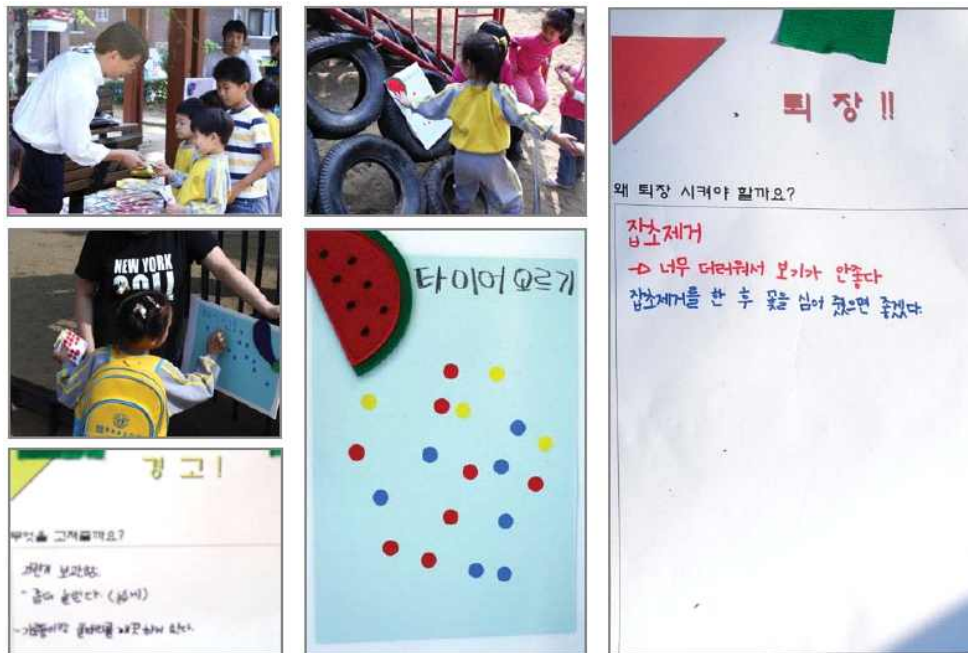
- ⑤ 소그룹에 속한 주민들은 작성한 카드를 모두 책상 위에 보기 쉽게 늘어놓고 서로 토론하면서 카드의 내용이 비슷한 것, 어떤 관계가 있는 것끼리 2~3매를 모아 그것을 공통주제로 분류
- ⑥ 각각의 공통주제로 모인 내용을 다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여 한 장의 카드로 작성
이를 공통주제의 대표카드로 함(카드 집단별로 알기 쉽게 그리고 가설을 만들기 쉽게 그림으로 엮어 보고, 관계가 있는 카드를 가까이 배치하거나 테두리를 쳐서 그 위에 표찰을 붙임. 상관관계가 있는 것끼리 화살표로 연결하여 가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⑦ 각 소그룹은 참가한 모든 주민들의 생각을 몇 개의 공통주제로 분류된 대표카드를 만들어 발표(예를 들면, 주민 50명이 참여하여 처음에 시작한 개인별 생각을 담은 카드의 개수가 50개였다면 10명의 소그룹 5개 팀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대표카드 5개를 만들어 냄)
- ⑧ 각 소그룹이 발표한 대표카드의 내용을 갖고 다시 ④부터 ⑦까지의 작업을 되풀이함
- ⑨ 서너 차례 소그룹 토론과 작업이 진행되면 마지막에는 각 소그룹별로 하나의 대표카드를 만들게 됨
- ⑩ 이렇게 만들어진 대표카드를 묶어 하나의 공통 문장으로 정리하여 참여한 주민 모두가 처음에 이야기한 각기 다른 생각들을 최종적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게 됨



[그림 9] KJ기법을 활용한 토론회

■ 평가단 옐로우 카드

- 대상지에 대한 현장평가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주변 환경이나 시설물을 평가하는 참여 프로그램임
 - 시흥시 걷고 싶은 거리 리모델링 사업과 수원 영통구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한 프로그램
- ① 어린이 놀이터 내 여러 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등) 앞에 평가판을 세움
 - ② 어린이들이 평가판에 옐로카드(개선 필요), 레드카드(교체), 블루카드(선호)를 부착
 - ③ 옐로우 카드를 많이 받은 것은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레드카드를 받은 것은 교체



[그림 10] 놀이기구에 대한 어린이들의 옐로우 카드 평가 모습

4) 디자인안에 대한 주민선택

■ 디자인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디자인안을 수정함

- 이 과정 속에 서 때로는 초기 디자인방향이 180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은 서로에게 배우게 됨

■ 또한 디자인안이 합의되더라도, 시공할 때의 재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존재

- 막연한 빨간색 벽돌이 아니라 각각의 재질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면, 주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선택
- 인사동 골목길 화단은 다양한 화단의 재질과 형태를 출력하여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이 결정하게 함
- 설령 그 선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대해 책임 따름
- 주민이 선택한다는 것은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



[그림 11] 디자인안에 대한 설명 및 주민의견 제안 모습

3. 시공

1) 공사일정 및 공사개시 알리기

-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주민들이 한평공원 조성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님
- 공사개시일에 대한 주민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도 홍보의 한 방법이며, 사전에 한평공원 준비과정에 대한 안내관 부착은 물론 당일 홍보물 배포

2) 시공 및 공사참여

- 한평공원은 인부들만으로 조성하지 않고, 주민들도 조성 과정에 직접 참여
- 삽을 들기도 하고 화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며, 이 모든 과정은 신바람 나는 축제
- 이때 주의할 점은 시공업체 선정인데,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주민참여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려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며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음
-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한평공원 조성과 관련된 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시공업체 역시 한평공원의 주체임을 인식 시키야 함



[그림 12] 한평공원 조성 홍보물

4. 모니터링

1) 개장식

- 한평공원 개장식은 조성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주민들이 모두 모여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서로를 격려하고 즐기며, 앞으로의 관리와 이용에 대해 다짐하는 마을잔치임
- 개장식을 통해 주민들은 또 다른 한평공원을 기대



[그림 13] 마을잔치와 같은 개장식

2)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 한평공원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관리의 지속성’
- 원서동 한평공원은 조성 이후, 작은 동네잔치를 통하여 ‘빨래골 쉼터’라는 이름을 얻음
 - 동네 아이들과 함께 화단에 꽃씨도 심고, 주민들이 거름도 주고 있음
 - 노인정 할아버지들은 조성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주머니돈을 털어서 예쁜 꽃을 사서 심음
- 수색동은 ‘사고주의 표지’를 책임지고 관리할 문방구 아저씨 등 다양한 주인이 있음
 - 사방치기 그림을 침범할까봐 그림 옆에 얇전히 고추를 말리는 금호동 할머니도 있음
 - 금화초등학교 교사들은 방음벽의 지구 모형을 3개월에 걸쳐 조금씩 파랗게 변화
 - 이렇게 한평공원은 오고가는 주민들의 작은 손길 속에서 자리 잡아가는 중임



[그림 14] 금화초등학교 방음벽의 변화 과정

제2절 조성사례 -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한평공원

1. 대상지 선정(재래시장 살리기)

■ 위기의 재래시장

-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시장은 1996년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지하기 시작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상인들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행공간 제공 및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을 구청에 요청
- 노점상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면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미루고 있던 구청은 상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1997년 문화의 거리 조성
-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으며, 분수대 조성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도 함
- 문화의 거리 조성 이후 노점상과의 갈등, 행정의 무관심, 시설물의 파손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으나, 꾸준한 상인들의 노력 속에서 문화의 거리는 인근 거리로 확대되어 나가는 등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음



[그림 15] 상인들이 만든 분수대

■ 한평공원 대상지 현황 - 노점과 상인의 협력

- 초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행정과 상인, 노점상간의 합의한 내용 중 하나는 '노점의 영업은 허용하나 매대는 금지시킨다.'는 것
- 조성초기 50개가 넘던 노점은 현재 15개 정도로 줄어든 상태임
- 상인들은 노점상이 떠난 자리에 자비를 들여 벤치를 설치하고 거리 영화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음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6시에 영업을 종료한 노점상들이 문화의 거리 중앙에 노점을 흉물처럼 방치됨 - 노점을 옮길 장소가 없고, 설령 노점을 옮길 장소가 있더라도 끌고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 노점상들의 의견이었음

- 이에 상인들은 450만원을 투자하여 노점 이동차량을 구입하였고, 인근에 노점을 옮길 장소를 마련
- 이를 계기로 노점상도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문화의 거리 가꾸기의 주체로 자리매김
- 한평공원 대상지는 바로 노점상이 떠나간 빈 공간이었음



[그림 16] 영업 후 방치된 노점의 이동을 위해 구입한 차량

■ 새로운 동력 필요

- 10년의 세월동안 상인들의 꾸준한 노력들은 지속되었지만 2km 반경에 5개의 대형마트가 영업 중이고, 또 2개의 대형마트가 입지할 계획인 상태에서 부평 문화의 거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
- 부평문화의 거리 조성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리더격인 상인은 도시연대에 '한평공원 조성사업'을 제안
- 노점이 떠나간 빈자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가 벌어진다면 부평문화의 거리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음
- 도시연대 역시 한평공원 사업이 동네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는 곳에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에 상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임



[그림 17] 한평공원 대상지

2. 주민참여 과정

■ 초기 디자인방향 - 자전거가 자유로운 거리

- 부평 상인들이 중심이 된 '부평 자전거도시 만들기 운동본부'는 2007년부터 매달 1회 '자전거 운동'을 펼치면서 문화의 거리를 상품과는 곳만이 아니라 보행과 자전거 문화의 거점으로 조성 희망
- 당시 도시연대는 '소규모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통한 자전거 생활화 운동을 고민하고 있었기에 소규모 자전거 보관소를 테마로 한 한평공원 만들기 구상
- 이를 주제로 상인들과 인터뷰 결과 문화의 거리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배전반 역시 거리의 흥물임을 파악가능
- 이에 '소규모자전거 보관소와 배전반 문제해결'이 부평 한평공원의 디자인방향

■ 지역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

- 한평공원 만들기는 지역조직과 함께 해야 하며, 한평공원을 통하여 지역 조직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의미하기 때문임
- 부평 한평공원은 '부평 자전거도시 만들기 운동본부'와 함께 진행
- 보행과 자전거에 친절한 부평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 한평공원 만들기의 또 다른 과정이기 때문이며, 자전거 보관소와 관련된 자문이나 협조는 운동본부가 맡기로 함
- 배전반에 대한 디자인안은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와 함께 진행
- 배전반을 폴리카보네이트판으로 싸고 그 안에 조명을 넣어 조명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디자인안은 상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으나 배전반 사이 빈 공간에 대한 디자인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
- 주민들은 그곳이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였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기에 화단을 계기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가 되기를 희망



[그림 18] 주민들이 함께 만든 화단

■ 최종 디자인 - 자전거 보관소, 화단, 그리고 조명탑

- 쉼터 및 자연공간으로 요구되었던 화단은 벤치와 화단을 일체화하는 원형화단으로 디자인
- 원형화단과 동일한 모양의 디스플레이 공간도 함께 제시되었는데, 이 공간은 상가에서 각자의 상품들을 멋지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
- 그러나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모두 원형화단으로 교체하였으며, 화단의성격상 겨울철 썰렁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명 설치
- 폭발적 관심의 조명탑과 예쁜 자전거 보관소, 원형화단이 부평 한평공원 최종 디자인안으로 결정

3. 시공 및 조성결과

- ‘문화의 거리 발전 추진위원회’는 한평공원 디자인안에 대한 상인 및 노점상 설명,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진행
- 축제와 함께 한 한평공원 개장식에는 노점상들이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한평공원을 계기로 노점상과 점포상인들은 좀 더 긴밀한 이웃관계를 형성
- 관심 없어 했던 구청 역시 한평공원 조성사업을 계기로 ‘부평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와 도시연대, 부평구청은 ‘부평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준비
- 한평공원을 계기로 서로 등 돌리고 무관심했던 이들이 손잡고 재래시장 살리기로 넓혀나가고 있는 중



[그림 19] 자전거 보관소, 원형화단과 조명탑

인용자료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주민참여를 통한 한평공원 만들기’

제3절 동해 북평동 봉정마을

1. 사업배경

- 동해시 북평동 132가구로 이루어진 봉정마을
 - 마을 공동체는 10여 가구만이 3대가 모여 살고 있고 나머지 가구는 모두 자식이 떠난 노부부만으로 구성됨
 - 벼농사와 콩 공동경작을 통해 전통 메주 생산
 - 마을에는 300년 된 전통 가옥을 중심으로 한옥이 존재하며 성황당, 고인돌, 소나무 등산로, 대나무 숲 등 볼거리
- 정부 지원사업이 한 번도 투입되지 않은 낙후된 마을
- 2005년 최지열 씨가 통장이 되고 북평 초등학교 교장의 은퇴 이주 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이면서 '떠나간 마을'에서 '돌아오는 마을'로의 변화의 움직임 시작



[그림 20] 봉정 학춤 공연 모습



[그림 21] 봉정 학춤 연습 모습

2. 추진과정

■ 주민들 간의 소통의 기회와 장소 조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시작

- 현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동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에, 주민들 간의 소통의 기회와 장소를 조성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봉정마을의 마을 만들기 시작
- 그 일환으로 시작된 봉정학춤은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연령이 높은 마을 주민들의 활기찬 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향토춤을 복원·개발
- 봉정학춤을 통해 대내외에 마을이 홍보되는 효과를 얻음은 물론, 2007년부터 농업진흥청 경연에 매년 출전해 2009년에는 최우수상 수상
- 봉정학춤은 노인인구가 대다수인 봉정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음



[그림 22] 문화자원 : 고창제



[그림 23] 문화자원 : 삼베짜기

1) 봉정마을의 마을 만들기

■ 지도자를 주축으로 한 ‘봉황새 연당 시범마을 마을추진협의회’ 구성

- 봉정마을의 마을 만들기는 마을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한 ‘봉황새 연당 시범마을 마을추진협의회(구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마을 통장이 위원장을 위임하고 위원회 산하에 봉황춤/교육, 소득증대/서포터즈, 환경개선 등 3개 분과를 두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

■ 봉황춤/교육 분과위

- 봉황춤의 다양화를 위해 전문가 그룹과 협의를 하며, 인근 대학교 교수 등을 초빙하여 주기적으로 주민교육 실시
- 마을 만들기의 3대 핵심 실천과제인 새농어촌 건설 화합 단결과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 마을경관·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해 집집마다 현판을 부착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정신 개혁을 위한 구심점 마련



[그림 24] 봉정마을 주민교육 모습



[그림 25] 봉정마을의 주민협의회

■ 소득증대/서포터즈 분과위

- 소득증대/서포터즈 분과위는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 마을 공동 경작과 마을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 축제 추진 및 마을 브랜드 개발의 업무도 맡고 있음



[그림 26] 죽세공예 체험



[그림 27] 실크공예 체험

■ 환경 분과위

- 봉정마을은 환경 분과위원들을 주축으로 한 마을 환경 정화활동, 공원과 산책로 및 안길 가꾸기, 한가정 한 화단 가꾸기 등으로 아름다운 마을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음
- 또한 가정마다 택호달기 운동, 마을 안길 솥대 설치, 폐품수거 정제화를 통해 꾸준히 변화



[그림 28] 마을정화활동

■ 결과

- 봉정마을은 동해시와 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참 살기 좋은 마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
-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서도 최우수 마을로 선정돼 1억 5,000만 원의 지원금
- 봉정마을은 앞으로 ‘연당고원을 위한 시범습지 조성사업’, 봉황새 연당길 조성사업, 300년 이상 전해져 오는 ‘봉정8경 복원사업’ 등의 물리적 환경 조성 계획과 봉황춤 프로그램의 다양화, 마을 소식지 제작 및 마을 축제 개최, 연령대별 주민교육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계획 추진
- 특히 봉정학춤의 대를 이을 제2세대 마을 리더의 준비 등을 통해 봉정마을은 동해시 도심 속의 전원 부촌 마을로 또 다른 변화 시도

제4절 순천 마을 만들기

1. 사업배경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쇠퇴현상을 보이는 순천
 - 신시가지의 개발로 기존 구도심의 인구와 상업이 신시가지로 이동하면서 순천시의 구도심은 심각한 쇠퇴현상
 - 구도심에 전체 인구 40%가 거주하고 있고 신시가지에 전체 인구 60%가 거주하고 있어 신시가지의 인구집중 현상이 뚜렷
 - 순천시는 구도심 쇠퇴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마을 만들기 선택
 - 2004년 순천시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면서 순천에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



[그림 29] 순천마을만들기활동 모습

2. 추진과정

1) 순천시 상상프로젝트

- 의욕적인 마을 만들기 추진
 - “제1조 시민은 항상 옳다. 제2조 시민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제1조를 다시보라”라는 순천시 자치헌장에서 나타나듯이 순천시는 의욕적으로 마을 만들기 추진
 -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 부족으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움
- 시민단체와의 민관협력
 - 순천시는 마을 만들기를 전개할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순천YMCA’, ‘순천KYC’, ‘그린순천21’ 등 순천지역 시민단체들과의 민관협력 시도

- 그 결과 순천포럼(순천지역사회문제를 토론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모임)을 통해 마을 만들기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주민자치대학 개설 및 운영

- 2005년 3월 순천시 삼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공무원,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학습하기 위한 가칭 ‘주민자치대학’ 개설 합의
- 매주 1회 주민자치 대학을 위해 주민자치연구회
 - 연구회는 먼저 광주YMCA의 ‘좋은 동네 시민대학’을 견학하고 순천지역의 특성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놓고 진지한 토론
- ‘순천시 좋은 동네 주민자치대학’의 프로그램은 순천YMCA가 위탁하고 주민자치대학장은 순천시장 이, 학습과 교육과 책임은 시민단체가, 그리고 주민자치대학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마을 만들기로 옮기기 위한 행정지원은 순천시 주민자치과가 맡음
- 주민자치대학에서 나온 의제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자치과가 행정지원을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5년 주민자치대학은 순천포럼이 개최된 삼산동을 첫 시작으로, 주민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왜 마을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음
- 이후 주민자치대학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동 지역에서 개최
- 주민자치대학에서는 수많은 의제와 정책이 쏟아졌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과는 선정된 과제가 마을 만들기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행정과 예산 지원
- 하지만 2005년 마을 만들기 대부분은 꽃밭 조성으로 이루어졌고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음
- 이에 연구회는 다시 토론하였고, 그 결과 동네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아래 마을 의제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으로 학습내용을 변경
- 그 결과 2006년 주민자치대학을 마치고난 후의 마을 만들기 내용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음

- 순천시 주민자치과(현 자치행정과)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이 2007년 참 살지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되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유지됐고 매년 예산 증가되고 있음

주민자치대학의 목적

• 사람 만들기

책임감 있고 건강한 마을 사람(주민, 시민)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은 주민자치대학의 핵심이다. 훈련된 주민은 마을 만들기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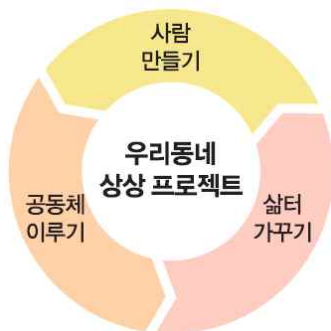
• 삶터 가꾸기

지역 내 삶터를 가꾸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 공동체 이루기

주민자치대학의 최종 목표는 마을 공동체(주민조직)를 이루는 일이다.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의 경로와 활동 체계를 만들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주민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우리 동네 상상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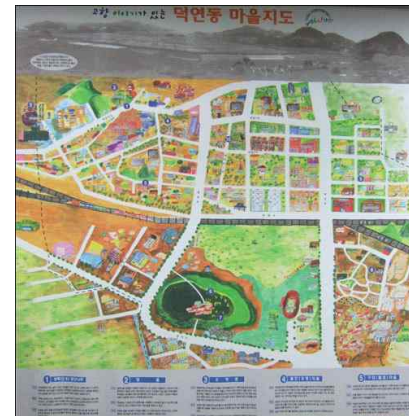


[그림 30] 우리 동네
상상프로젝트 목적

-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4개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대학이 개최되었고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 하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성이 문제 되었고, 매년 사업계획 및 내용이 변경되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가 있으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주민자치연구회는 다시 모여 토론을 진행하여, 순천시는 '10년 후 우리 동네 상상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상상프로젝트에서 순천시는 주민자치활동과 마을 만들기를 위해 사람 만들기, 삶터 가꾸기, 공동체 이루기라는 3가지 목표를 세우고 마을과 동네별 특성에 맞도록 이미 주민자치 대학 기본 과정을 마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과 실무학습 진행



[그림 31] 덕연동주민자치위원회의 물길찾기 사업



[그림 32] 덕연동 마을지도

2) 시끌벅적 도시 디자인 구도심 재창조 사업

■ ‘시끌벅적 도시 디자인 구도심 재창조 사업’

- ‘시끌벅적 도시 디자인 구도심 재창조 사업’은 순천YMCA가 추진하고 한국토지공사 초록사회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
- 이 사업은 순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미술 적용, 다양한 공연, 청소년 문화의 결합, 원도심의 독특한 문화 창조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



[그림 33] 시끌벅적 도시디자인 사업소개 알립판



[그림 34] 순천 도시 내 벽화 조성

(1) 시끌벅적 골목 아티스트와 지하상가 중앙쉼터 조성 사업

■ 시끌벅적 골목 아티스트

- ‘시끌벅적 골목 아티스트’는 시끌벅적 도시 디자인을 하는 청소년들을 가리킴
- 그들은 중앙상가 쉼터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빈 점포 갤러리 주인이 되며 중앙동 지하상가에 거점을 마련하여 방송국과 신문 등을 스스로 제작해 청소년 문화를 어른들에게 이해시키고 결합시키는 역할 수행
- 구체적으로는 순천YMCA에서 진행하는 ‘골목 아티스트’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단계적으로 순천 옛 성터 이야기 지도 제작, 시끌벅적 신문 제작, 중앙동 지하상가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시끌벅적 음악회, 거침없는 시끌벅적 방송국 등을 직접 운영

■ 순천지하상가 중앙쉼터 조성 사업

- 시끌벅적 도시 디자인의 첫 번째 시도는 순천지하상가 중앙쉼터 조성 사업
- 순천지하상가 중앙쉼터를 리모델링하고 각 출입구에 벽화를 제작해 순천 시민들의 쇼핑과 이동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어둡고 어수선했던 느낌을 주고 있는 순천지하상가를 밝고 환한 느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 특히 지하상가 출입구 벽화 제작에는 골목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는데, 쇠퇴하고 있는 순천지하상가의 활성화는 물론 중앙동 일대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만들기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시도
- 이번 사업에는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여, 함께 지하상가 벽에 1,000장의 벽화 타일을 제작
- 벽화는 순천시내 초·중·고교생 1,000명이 톡톡 튀는 상상력을 발휘해 ‘10년 후 내 모습’을 담은 그림들로 꾸며짐



[그림 35] 순천지하상가 벽화

(2) (#)반올림 초록광장 조성 사업

■ 2007년 시작된 순천시 ‘시끌벅적 도시디자인 구도심 재창조 사업’의 두 번째 작품

- 골목 아티스트들은 “도시는 재미있어야 해요”, “거리가 지루해요”, “돈 없이 쉴 수 있어야 해요”라는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의견들을 내세워 결국 도시디자인 2호인 반올림 초록광장 조성사업이 시작됨
- 부지는 모두 사유지로, 마스터플랜이 있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
- 반올림 초록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벽화도 그렸고 화분도 만들었으며, 벤치 디자인부터 광장 디자인까지 많은 사람들의 참여 계속됨

■ 시민참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

- 순천 YMCA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 어스와 등불, 순천청암고등학교 디자인과 학생들, 순천여중 학생들, 성동초등학교 학생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중앙동 상인들, 순천YMCA 평화학교 학생들, 순천YMCA 직원들, 회원들, 이사들, 공무원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여 디자인 시도
- 벤치부터 광장까지 아이디어가 모이면 전문가에게 전달되어 현실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는 후, 직접 제작에 착수하는 과정으로 진행



[그림 36] 지역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벤치

부록 2. 지역 포커스 그룹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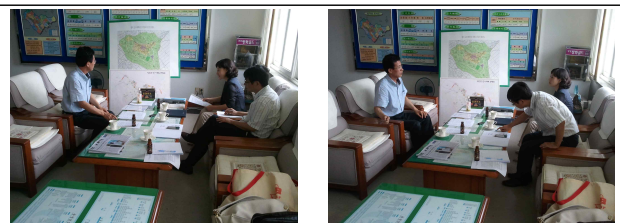
□ 합덕청년연합회 회장

- ▷ 날 짜 : 2011. 08. 04(목) 10:00 ~ 12:00
- ▷ 장 소 : 합덕읍사무소 2층 회의실
- ▷ 인터뷰 대상 : 합덕청년연합회 강태근 회장
-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인터뷰 질문	인터뷰 내용
지역자원	- 천주교와 연계하여 쌀 판매, 버그네 방죽(합덕제) 재건을 통한 관광지 개발
주민 숙원사업 및 발전방향	- 주거지가 확보와 그에 따른 복지문화 형성, 합덕제 재건, 삶의 질 향상 - 한우특화거리의 활성화
자발적인 참여	- 시민단체도 많고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저해요인	- 주거지가 없어 인구가 유출되어서 발전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불거리, 먹거리 등의 부족도 저해요인 중 하나임
읍청사 이전	- 이전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전통시장 활성화	- 품목의 다양화 필요
중심시가지의 가로 정비와 경관정비	- 가로 정비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주차난의 해소가 시급함
합덕버스터미널	- 읍사무소쪽으로 이전하거나 합덕역쪽으로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 - 현재의 터미널은 정비만 조금 해주면 됨
성지순례코스과 합덕읍에 가톨릭적 요소의 도입	- 단지 지나갈 뿐 합덕에서 소비하거나 머무르지 않음 - 합덕제 인근을 개발하여 불거리를 만들어야 함 - 가톨릭적 요소의 도입은 천주교 관련 사람들만 좋아지지 합덕자체가 발전하는 방안은 아님

□ 합덕읍장

- ▷ 날 짜 : 2011. 08. 04(목) 13:30 ~ 15:00
 ▷ 장 소 : 합덕읍사무소 읍장실
 ▷ 인터뷰 대상 : 합덕읍장 김기서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합덕읍사무소 읍장실 인터뷰 현장

인터뷰 질문	인터뷰 내용
지역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건신부 탄생지, 합덕성당, 신리성지 등 천주교 전래가 번창했던 곳 - 조선시대 3대 방죽 중 하나인 합덕제가 대표적 지역자원임
주민 숙원사업 및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조성,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인구유입 - 인구가 지역발전의 척도,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요소(볼거리, 먹거리)의 개발이 필요 - 주차공간 확보 - 중로1-1(버그네연립 백설상사-하운공원간) -> 원도심 접근성향상과 주거지역(아파트 건립요건 충족 등) 활성화 차원에서 신속한 확장을 통한 아파트 건립(젊은층의 외부유출이 심각함)
자발적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참여도 미약
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이끌 리더 부족, 참여도 미약(미온적), 말로만하고 실천력 전무, 잘하려는 사람 끌어내리려는 사고방식, 폭력적 지역 이미지
읍청사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청사가 입지할 수 있는 주변개발계획이 있다면 이전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전통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과 연접해 있는 상점가와 연계발전방안이 필요 - 기존전통시장과 연결 될 수 있는 아케이드 시설이 필요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시설을 요함
중심시가지의 가로 정비와 경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히 필요하고 현재 사업 진행 중이고, 터미널 - 시장 간, 우체국 - 합덕초등학교 간 가로확장과 정비가 추가적으로 필요 - 걷고 싶은 거리보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합덕버스터미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하다고 보지만 읍 전체적인 발전측면에서 사업우선순위 조정이 필요 - 교통수요가 없는 관계로 버스노선 및 배차가 많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추진한다면 기존업체(마인드 부족)를 배제하고 새로운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지순례코스과 합덕읍에 가톨릭적 요소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이 거의 없다고 보며 그 이유는 성지순례 대부분이 대형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주변에 볼거리, 먹거리 등 열악한 관광여건과 매력 있는 상품이 전무 - 합덕읍과 천주교 간에 상호 협력관계로 읍은 성당주변경관과 부대시설지원, 행사지원 등 성당과 성지에서는 지역민과 함께한다는 의식으로 각종지역행사개최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어 가톨릭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봄

□ 합덕읍 발전협의회장

- ▷ 날 짜 : 2011. 08. 05(금) 10:00 ~ 12:00
- ▷ 장 소 : 합덕읍사무소 2층 회의실
- ▷ 인터뷰 대상 : 합덕읍 발전협의회 신혁균 회장 및 사무처장
-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합덕읍사무소 회의실 인터뷰 현장

인터뷰 질문	인터뷰 내용
지역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자원과 관련된 2, 3차 산업 - 합덕제 - 천주교
주민 숙원사업 및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덕제를 방문객이 숙박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필요, 볼거리 필요 -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활성화 -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해소 필요, 주차공간 확보 - 주거공간 확보
자발적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단체는 많이 있으나 참여 미흡 - 인구유출이 심해지면서 지역 발전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
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쇠퇴, 인구 유출, 군에서 남부 발전 투자 미흡
읍청사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하기 위해서는 읍청사의 지금의 위치가 적절함. 읍청사 이전하는 예산으로 다른 곳을 개발하는데 투자해야함
전통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확보 필요, 오일장은 활성화되었으나 상설시장은 비쌌 - 가격이 저렴해져야 함
중심시가지의 가로 정비와 경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경관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합덕버스터미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터미널로 바뀌어야 함 - 복합환승터미널로 해서 이전할 경우 순환버스가 있다면 가능할 것
성지순례코스과 합덕읍에 가톨릭적 요소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톨릭에 대한 요소를 도입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 없겠으나, 도입하기 위해서는 성당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

□ 당진군의원

- ▷ 날 짜 : 2011. 08. 05(금) 10:00 ~ 12:00
 ▷ 장 소 : 합덕읍
 ▷ 인터뷰 대상 : 당진군의원 김명선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인터뷰 질문	인터뷰 내용
지역자원	- 천주교와 방죽(합덕제)
주민 숙원사업 및 발전방향	- 지역경제의 활성화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우선시 해야 함 - 아파트 건설(인근지역으로 인구유출 방지)
자발적인 참여	- 자발적 참여 없고 관계자만 나와서 본인들의 이익만 주장함 - 시민단체 위주의 개발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됨
저해요인	- 화합이 되지 않고, 변화를 싫어함
읍청사 이전	- 청사 이전 찬성 - 이전하는 주위 부지를 매각하여 정비하여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전통시장 활성화	- 시장관련 땅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 상인의식의 고취 (단합을 해서 물건이 비싸고 내릴 생각도 없음) - 시내버스의 중심도로 통행하면 노점상이 영업을 하지 못해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중심시가지의 가로 정비와 경관정비	- 가로 정비 필요하고, 특히 홍인아파트-진입로 간의 가로 정비가 필요함 - 제일의원 중앙약국 앞에 공터를 매입하여 광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음
합덕버스터미널	-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후에는 현재의 터미널의 위치가 아닌 32호선 국도 진입로 쪽으로 이동이 필요 - 터미널 위치에 좀 더 매력적인 테마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음
성지순례코스과 합덕읍에 가톨릭적 요소의 도입	- 솔피성지를 방문객이 많기는 하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일정상 솔피성지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정도로 짧고, 합덕읍 안에 관련된 요소가 없으니 방문할 이유가 없음 - 가톨릭적 요소를 합덕읍내에 도입하는 것은 좋으나 신부님과 상의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주민자치위원회

- ▷ 날 짜 : 2011. 08. 09(화) 10:30 ~ 12:00
 ▷ 장 소 : 합덕읍사무소 2층 회의실
 ▷ 인터뷰 대상 : 주민자치위원회 김명진, 정성훈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합덕읍사무소 회의실 인터뷰 현장

인터뷰 질문	인터뷰 내용
지역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인데 쌀의 가치 하락으로 인구 유출되고 시가지가 쇠퇴하는 모습을 볼 때 자원은 잘 모르겠으나 사람이 있어야 함 - 가톨릭과 연호제가 지역자원이지만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음
주민 숙원사업 및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및 체험활동의 개발 필요 - 아파트 건설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자발적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목소리만 높고, 단합이 되지 않음 - 자발적인 참여는 어렵겠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교육을 한다면 따라주기는 할 것으로 예상
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간의 갈등과 리더들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반목이 저해요인임 - 중추적 리더의 부재
읍청사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하지만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함 -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 읍청사의 위치가 앞으로 중심적인 위치가 될 것이고, 읍청사를 이전해도 상권이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주차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전통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입인구의 증가를 위해 시장의 확충과 다양화가 필요 - 시장 내의 갈등이 심하며 일부가 수익을 독점하고 있음
중심시가지의 가로 정비와 경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정비를 하는 것은 좋으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함
합덕버스터미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미널을 공영화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함 - 복합환승터미널로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경우 지금의 터미널도 소규모 투자를 통해 승터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함
성지순례코스과 합덕읍에 가톨릭적 요소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거리가 없어서 외지인이 방문하지 않음 - 천주교에 대해서 사업에서 도입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임

□ 교동1리 이장(상가번영회장)

- ▷ 날 짜 : 2011. 08. 09(화) 13:30 ~ 15:00
- ▷ 장 소 : 합덕읍사무소 2층 회의실
- ▷ 인터뷰 대상 : 교동1리 이장(상가번영회장) 정재우
-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합덕읍사무소 회의실 인터뷰 현장

인터뷰 질문	인터뷰 내용
지역자원	- 술피성지, 구합덕성당, 신리성지 등의 버그네 순례길과 관련된 것
주민 숙원사업 및 발전방향	- 주거지가 확보 및 공장입지로 인구유입 증가, 인구 흡입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 - 경제활성화 필요(8시만 되고 상점 문 닫음, 공점포 많음)
자발적인 참여	- 자발적인 참여는 하지 않으나, 설득을 통해서 합의점을 가능 - 주도할 수 있는 리더의 부재로 인해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저해요인	- 개인적 이익만 중시하면서 대립하고 있음
읍청사 이전	- 단순한 읍청사의 이전이라면 반대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전하는 것이라면 빠르게 진행 되었으면 함
전통시장 활성화	- 주차장이 확충, 정육점과 식당 사이에 아케이드가 설치 - 세력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단합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중심시가지의 가로 정비와 경관정비	-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합덕버스터미널	- 경유하는 차량이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 - 공영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성지순례코스과 합덕읍에 가톨릭적 요소의 도입	- 술피성지 방문객은 전혀 오지 않고 있음 - 볼거리가 없고, 주차장도 협소한 것이 문제점 - 가톨릭적 요소를 도입하여 볼거리를 만드는 것은 좋음

□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

- ▷ 날 짜 : 2011. 08. 11(목) 10:30~12:00
 ▷ 장 소 : 합덕읍 영덕청과 사무실
 ▷ 인터뷰 대상 : 중앙시장 상인회 전광휘 회장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인터뷰 질문	인터뷰 내용
지역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이 자원이나 좀 더 발전해야 함 - 관광객이 자원임 (시장 방문하여 소비활동 이루어짐)
주민 숙원사업 및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유입을 위한 볼거리, 먹거리의 다양화 - 공장 등의 설치로 인구유입 - 삶의 질 향상 - 시장 활성화
자발적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민은 많으나 참여 미흡, 정확한 방향제시가 있다면 참여 가능
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전무, 변화를 싫어 함 - 상인회의 이원화로 서로의 이익만 주장 - 인구유출로 인해 상가에 손님이 없음
읍청사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 읍청사가 이전하면 시장이 활성화 되고, 근접성이 좋아짐 -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전해야함
전통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 상인의 고령화 및 새로운 가게의 개점이 미비 - 상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필요 - 아케이드, 주차장, 다목적회관 설치
중심시가지의 가로 정비와 경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정비 대단히 중요, 노상주차문제 해결해야 함
합덕버스터미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 적어 영업이 잘 안 되고,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 건물주변이 혼잡함 - 정비하여 사용하고, 합덕역과 함께 위치시켜 노선을 확충해주어야 함
성지순례코스과 합덕읍에 가톨릭적 요소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관광객들이 시장을 방문하여 먹거리를 사가는 경우가 있으나, 볼거리가 부족하여 많은 인원이 유입되지는 못함 - 가톨릭적 요소를 시장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면 좋겠음 - 가톨릭적 요소의 사용은 시민들의 반감 적음 (가톨릭은 사회와 잘 융합됨)

□ 내포교회사연구소 담당 신부

- ▷ 날 짜 : 2011. 08. 11(목) 13:30 ~ 15:00
- ▷ 장 소 : 솔피성지 내 내포교회사연구소
- ▷ 인터뷰 대상 : 내포교회사연구소 김정환 신부
-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솔피성지 인터뷰 현장

인터뷰 질문	인터뷰 내용
천주교적 자원을 합덕에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례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합덕유스호스텔을 대부분이 이용하나, 적은 인원을 수용할 뿐 아니라, 개인 이용객에게는 불편함 - 합덕읍에 모텔이 아닌 순례자를 위한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 - 순례라는 것은 조용히 걸어야 하는데 합덕시가지는 안전하지 않음 - 차량으로 인해 순례객들에게 위협
천주교적 자원 삽입을 종교적 차원에서 수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을 붙이는 것은 괜찮으나,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물질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신 합덕성당=김대건신부기념성당, 대건택시, 대건노인대학 등)
합덕읍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라보는 측면의 차이가 있음 - 천주교를 상품화하려고 하지만 천주교는 성스럽게 보고 있음
합덕의 천주교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으로 고찰해 봤을 때 옛길이 순례코스로 합덕시가지를 지남 - 내포 내에서 조선시대 천주교가 박해받을 시기에 천주교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음
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친절로 방문객들이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음 - 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걷는 순례자들이 위험함 - 작지만 깨끗한 도시가 필요

□ 구합덕성당 담임 신부

- ▷ 날 짜 : 2011. 08. 11(목) 15:00 ~ 16:30
 ▷ 장 소 : 합덕유스호스텔 사무실
 ▷ 인터뷰 대상 : 구합덕성당 홍광철 신부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합덕유스호스텔 사무실
인터뷰 현장

인터뷰 질문	인터뷰 내용
천주교적 자원을 합덕에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적 지원은 어렵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원이 가능
천주교적 자원 삽입을 종교적 차원에서 수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하는데 현재 합덕은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 - 합덕은 천주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므로 종교적 차원에서 수용 가능 - 합덕성당에서 천주교인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 - 천주교적 요소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닌 융합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합덕읍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만한 관계
합덕의 천주교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의 자유를 찾은 후 처음 지어진 곳이 합덕성당이고 다양한 천주교적 활동을 한 곳
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거리의 부족, 특화된 것이 필요 (순례길 관광객이 합덕유스호스텔에 숙박하면서 인근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가까운 합덕을 방문하지는 않음) - 상인들의 의식교육 필요 (가게 앞 주차공간 확보 등) - 대중교통의 확충을 통해 합덕성당과 합덕시가지의 용이한 연계 필요 - 합덕의 물가 비싸고, 물건이 다양하지 못함

□ 솔피성지 담임 신부 외

- ▷ 날 짜 : 2011. 09. 02(금) 14:00 ~ 16:00
 ▷ 장 소 : 솔피성지
 ▷ 인터뷰 대상 : 솔피성지 이용호 신부님, 당진군 문화재팀 남광현 외 2명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솔피성지 인터뷰 현장

인터뷰 질문	인터뷰 내용
버그네 순례길에 합덕시장을 넣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에 의심받지 않기 위해 사람이 많은 장터에서 신자들이 표식을 하고 정보 교환을 했던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순례길에 포함 - 순례길이라는 것은 역사를 소재로 한 storytelling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합덕이 차지하는 위치 - 코스가 1주일 이상의 코스가 나와야 합덕에서 숙박을 하게 될 것이다.
합덕의 지역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과 사과를 방문객들에게 판매하여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 - 합덕은 조선시대에 곡간역할을 하면서 합덕방축이 확장되면서 수탈의 대상이었고, 신분층의 변화를 주도했던 지역 - 일제 강점기에는 신작료가 생기면서 합덕이 커져갔고, 삼교천으로 인해 쇠퇴 - 사람이 가는 길을 멈춰야하는데 그 요소가 천주교와 농작인 것은 맞지만 억지로 살리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 - 지금 현재 논둑길로만 걷고 있음 - 합덕 내에 천주교를 띄는 버그네 다방이라던가 하는 식의 요소가 있어야 함 - 걷는 길을 형성해 놓으면 결국에는 연관된다고 생각함 - 합덕 들판을 걷는 느낌은 좋음. 지금의 대규모 걷기는 홍보에 불과하고, 나중에는 소규모 걷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면 함 -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걷는 것인데, 합덕은 현재 차가 중심 - 최소한 장서는 날이라도 차가 들어오지 않아야 하는 규약이 필요함 - 합덕 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합덕의 외곽에 있는 합덕제라든가 신리성지, 솔피성지와 같은 요소들을 끌어들이야 함

천주교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벤트적 요소로 최고령자의 족적, 최연소자의 족적과 같은 대중의 족적을 시가지에 도입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순례에 대한 교육을 하고, 홍보매체를 준비할 예정 - 현재 합덕성당에서 음악제와 성채거동을 하고 있고, 솔피성지에서도 야외음악당이 완공되면 합창단 공연을 할 예정이고, 현재는 조각전시회를 하고 있음 - 103인 성인 중 충남 출신이 많고, 125명의 시국시성 대상자 중 충청도인이 50명으로 많은 수의 천주교인이 충청도에서 배출 - 이런 내용들이 작은 표지석이 될 수 있음 - 합덕의 천주교 신자가 44%(우강면사무소조사)로 다른 곳보다 높음 - 순례길을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천주교를 상징적으로 담겠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음 - 성지순례길은 역사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 합덕내의 천주교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에 이름 있는 신부님들에 대한 전시로 천주교로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대중을 전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천주교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순례길 조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요소들 - 숙박을 한다면 남는 시간에 숙박하는 곳 주변을 걷고, 구경하게 됨 - 현재 신리성지를 갈 경우 덕산에서 자고, 소비하고 있음 - 천주교적 요소를 하나의 문화로 지역 발전의 하나의 방안 생각할 것 - 종교적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임 - 걸으면서 소비하고 숙박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연결을 통해 활성화시켜주면 된다고 생각
발전을 위한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함 - 예로 기존의 여관을 순례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바꾸고 싶음 -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함 -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걸으면서 소비를 하게 됨 - 정해진 시간에만 차가 통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듯

□ 지역리더 인터뷰 내용 총괄정리

질 문	답 변	
지역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덕제 - 가톨릭(솔피성지, 구합덕성당, 신리성지, 버그네 순례길 방문객) - 재래시장 	
주민숙원사업 및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거리, 먹거리 및 체험활동 개발(합덕제 재건, 천주교 연계 쌀 판매) - 관광객 숙박 공간 필요 - 쾌적한 정주환경(아파트 건설) - 주차장 확보 -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 경제활성화 필요 - 시장의 활성화(한우특화거리 활성화) 	
자발적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많고, 활동 활발함 - 개인적 이익만 중시 - 인구유출 심해지면서 최근 관심 증가 - 정확한 방향제시를 통해 참여 유도 가능 	
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간의 갈등(개인이익중시) - 변화를 싫어함 - 중추적 리더의 부재 - 폭력적 이미지 - 농업의 쇠퇴, 인구 유출 - 군의 남부 발전 투자 미흡 - 불친절한 상인 - 가로 정비 미흡해 보행자 위험 - 주거지 부족 - 볼거리, 먹거리 부족 - 더러운 도시가로 - 대중교통 불편 	
읍청사 이전	찬 성 의 견	반 대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근접성이 좋아짐 - 구체적 계획을 세워 추진 필요(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중심지가 될 것임 - 예산 낭비 - 현재 읍청사주변이 우범지역이 될 수 있음
전통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확충과 다양화 - 상인간의 화합 - 아케이드, 다목적회관 설치 및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 - 가격이 저렴해지고, 서비스의 확충 - 상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가로정비와 경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정비는 필요하나 걷고 싶은 거리는 시기상조 - 광장 조성(오픈스페이스 조성) - 주차장 확보 필요(노상주차문제 해결) 	
버스터미널	현 버스터미널 유지	추후 복합환승터미널로 이전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화를 통한 나은 환경조성 - 새로운 민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터미널 부지 주민 쉼터 및 매력적인 공간 조성 - 순환버스 운행
가톨릭 요소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유입을 위한 볼거리, 먹거리 등 매력적 요소 필요 	숙박시설 확보
	주민입장	천주교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반발 없음 (천주교 측과 충분한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인 지원은 어려움 - 천주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관심 필요

부록 3. 1차 설문조사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합덕읍 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합덕읍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정책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과 16개 시·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충청남도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합덕읍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사회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당진군청 도시교통과
책임연구원 윤정미 도시계획팀 염태상
전화 041-840-1203 전화 041-350-3731

■ 설문 응답자 정보

거주지	합덕읍 (리)	거주기간	년
성별	남 / 여	연령	세
직업	① 지역주민 ② 이장 ③ 지역리더(각종 단체대표) ④ 지역상인 ⑤ 기타()		

I. 합덕읍의 이미지

1. 합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이미지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합덕’하면 연상되는 단어 3가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2. 합덕읍의 지역발전방향 3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문화관광도시 ② 농업도시 ③ 산업도시 ④ 전원도시
⑤ 교육문화도시 ⑥ 도농교류도시 ⑦ 종교도시 ⑧ 기타()

3. 합덕읍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또는 시설)을 3가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II. 합덕읍의 실태 의식조사

1. 현재 합덕읍의 발전 수준은 최근 10년 전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과거보다 성장 ② 과거와 같은 수준 ③ 과거보다 쇠퇴 ④ 잘 모르겠음

2. 현재 합덕지역의 정주 여건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① 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 수준					
② 농업기반 및 농업 소득 수준					
③ 제조업서비스 기반 및 지역 소득 수준					
④ 주거 수준					
⑤ 생활환경(도시기반)수준					
⑥ 교육, 문화, 복지 수준					
⑦ 종교(카톨릭 문화) 자원 수준					
⑧ 지역사회활동(시민사회활동) 수준					

3. 합덕읍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3-1.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내부요인 3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보수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②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③ 지속적인 인구 유출 ④ 재래시장 및 지역 상권의 쇠퇴
 ⑤ 특색있는 지역자원의 부족 ⑥ 높은 지가로 인한 개발비용 부담
 ⑦ 중심시가지의 물리적 노후

3-2.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외부요인 3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주변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② 공공부문의 지역개발 사업 투자 미흡
 ③ 민간 부문의 저조한 투자 ④ 교통 발전에 따른 생활패턴의 광역화
 ④ 대도시 의존적인 소비 구조 ⑤ 외부로 부터 인구 유입 부족
 ⑥ 농촌지역 개발 정책과 제도 부족 ⑦ 대도시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불량

3-3. 지역쇠퇴에는 내·외부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부 요인

② 외부요인

4. 다음은 합덕읍을 둘러싼 주요 환경변화입니다.

이들 환경변화가 합덕읍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구 분	매우 긍정적	긍정적	잘모르 겠음	부정적	매우 부정적
① 당진시로 승격					
②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인구 50만 규모로 행정구역통합)					
③ 충남도청 신도시의 조성					
④ 중소도시 재생사업의 추진					
⑤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역할 다변화					
⑥ 서해선 복선전철 및 합덕역의 개설					

5. 합덕읍의 지역이미지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부합	부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① 친절한 도시					
② 깨끗한 도시					
③ 안전한 도시					
④ 질서있는 도시					
⑤ 개방적인 도시					
⑥ 시민참여적인 도시					
⑦ 공정한 도시					
⑧ 창조적인 도시					
⑨ 편리한 도시					

Ⅲ. 합덕읍의 전망 의식조사

1. 합덕읍은 향후 10년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① 현재보다 성장 ② 현재와 같은 수준 ③ 현재보다 쇠퇴 ④ 잘 모르겠음

2. 앞으로 당진군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3군데 표기)

- ① 당진읍 ② 합덕읍 ③ 송악읍 ④ 고대면 ⑤ 석문면 ⑥ 대호지면
⑦ 정미면 ⑧ 면천면 ⑨ 순성면 ⑩ 우강면 ⑪ 신평면 ⑫ 송산면

3. 귀하가 향후 10년 이내에 이주를 한다면 어느 지역을 희망하십니까?

- ① 당진읍 ② 당진군의 다른 지역 ③ 주변 인근 시군(천안, 아산 등)
④ 내포신도시 ⑤ 수도권 ⑥ 기타지역() ⑦ 이주 의향 없음

4. 합덕읍 발전을 위해 다음 요소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① 합덕읍내 거주 인구 증가					
② 방문객의 지역내 유인으로 경제 활성화					
③ 다양한 시설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④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					
⑤ 중심시가지 정비					
⑥ 지역상권의 활성화					
⑦ 지역 정체성 확보					
⑧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5. 최근 합덕읍청사를 중심시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조건부(예, 주차장 및 광장 조성 등 병행시) 찬성
③ 반대 ④ 잘 모르겠음

6. 향후 합덕읍 발전을 위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표시)

- ① 공무원 ② 의회 ③ 지역주민 및 지역 리더
④ 지역사회단체 ⑤ 전문가 ⑥ 지역 기업 ⑦ 상인

7. 향후 합덕읍 발전을 위해 자발적 주민 참여 의사가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없다 ⑤ 매우 없다

※ 합덕읍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이 있다면 작성해
주십시오 (사업위치, 사업내용 등)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4. 2차 설문조사지

「합덕지역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 타당성 조사

I. 합덕지역 발전의 방향 조사

1. 합덕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이미지 ② 자원 ③ 개발수요 ④ 정책의지

2. 중심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각 사항의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중요도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지역정체성 확보						
주민 의식변화 및 참여						
공공투자 확대						
민간투자 확대						
도시기반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3. 다음은 합덕읍의 이미지와 자원으로 도출된 요소입니다. 이것은 합덕읍 발전 요소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중요도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가톨릭						
합덕제						
농업						
전통시장						

4. 합덕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지역정체성 확보 ② 시민사회 활성화 ③ 소득 증대
④ 인구 증가 ⑤ 삶의 질 개선

II. 세부사업의 타당성 조사

1.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다음사업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합덕읍청사 이전과 공적공간 조성						
가톨릭 상징공간 조성 및 경관 정비						
버그네 장터 조성 및 활성화						
합심덕적의 회복과 시민사회 활성화						
공공시설 운영프로그램 개발						

2. 합덕읍청사 이전과 공적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참여의사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① 기반시설 확충 ②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 ③ 주민 교육의 확대
④ 지역 마케팅의 추진 ⑤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3. 가톨릭 상징공간 조성 및 경관 정비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참여의사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① 기반시설 확충 ②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 ③ 주민 교육의 확대
④ 지역 마케팅의 추진 ⑤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4. 버그네 장터 조성 및 활성화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참여의사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① 기반시설 확충 ②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 ③ 주민 교육의 확대
④ 지역 마케팅의 추진 ⑤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5. 합심덕적 회복과 시민사회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참여의사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① 기반시설 확충 ②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 ③ 주민 교육의 확대
④ 지역 마케팅의 추진 ⑤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6. 공공시설 운영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참여의사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① 기반시설 확충 ②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 ③ 주민 교육의 확대
④ 지역 마케팅의 추진 ⑤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 설문 응답자 정보

거주지역	합덕읍 (리)	거주기간	년
성별	남 / 여	연령	세
직업	① 지역주민 ② 이장 ③ 지역리더(각종 단체대표) ④ 상인 ⑤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5. 회의록

□ 당진군수 인터뷰

- ▷ 날 짜 : 2011. 06. 01(수) 16:30
- ▷ 장 소 : 당진군청
- ▷ 참 석 자 : 군수, 도시계획팀장
-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이영욱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덕읍과 도청 접근성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지역발전 기대 - 농업 인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강-선우대교로 예산으로 유출 - 합덕읍의 중심성 강화요구 - 공용터미널을 군에서 수용 예정 - 합덕읍 30~40년 전에 읍으로 승격하였고 송산지구개발사업 진행 중, 주거지역이 협소, 주거지역 확보가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덕읍의 개발 잠재력, 개발속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지역발전의 가장 큰 문제 (※ 송산지구개발사업: 우강면 송산리 일원 92,004㎡, 입주세대 338세대, 수용인구 913명 개발될 예정) - 합덕읍 내 산업단지-의학, TECHNO POLIS - 2012년 하반기 합덕역 서해안 복선철도 인해 주거지역 확보 가능성이 있음 - 합덕수리민속박물관, 합덕제 복원공사를 계기로 관광객 유입 접근필요성 (합덕읍 관광자원 : 성지순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당진→성지순례인 연간 30만명 	

□ 군수님 협의

- ▷ 날 짜 : 2011. 09. 19(월) 14:30 ~ 16:00
- ▷ 장 소 : 당진군청 군수실
- ▷ 인터뷰 대상 : 당진군수, 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팀장
-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당진군청 군수님 협의

구 분	내 용
최선규 도시교통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청사 이전에 대한 대안들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해줘야 함 - 중간보고는 실과장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되어야 함 - 버스터미널 매입할 예정 - 읍면거점사업 계획 중
이철환 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청사 이전, 공영터미널, 중앙로 지중화사업 등 많은 사업이 추진 중 - 도청 이전할 경우 15분 거리로 현 상황에서는 인구유출의 가능성이 높음 - 인구가 유입될 만한 요소가 없음 - 농업기술센터는 중심지가 당진이었기 때문에 이전하지 못했지만 남부지소를 만들 계획 - 공영터미널 매수 예정, 임대주택은 수포로 돌아갔으나 민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음 - 가톨릭 순례자들은 정주민구가 아님 - 외부에서 인구유입하기 어려움 - 폐쇄적인 주민을 바꿔야 함 - 주민조직하기에는 사람이 없고, 여력도 없음 - 가까운 우강도시개발을 통해 발전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 할 수 있기를 기대 - 아파트는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없어 오래된 아파트조차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의 확장이 시가지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 - 읍청사 이전에 대한 대안들의 사업비 분석을 통한 비교가 필요

□ 「합덕읍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 날 짜 : 2011. 10. 24(월) 14:00 ~ 16:20
 ▷ 장 소 : 합덕읍사무소 회의실
 ▷ 토 론 자 : 배웅교(중앙대학교 교수), 임남형(충남대학교 교수)
 김명선(당진군 의원), 신혁균(합덕읍발전협의회 회장)
 김기서(합덕읍 읍장), 이형열(합덕읍 주민자치위원 부위원장)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구 분	내 용
배웅교 교수	- 물리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향상 필요
이형열 합덕읍 주민자치위원 부위원장	-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한 정체성 필요 - 가톨릭 자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해 줄 것 - 차 없는 거리, 자전거길 조성 - 시장을 현대화할 것이 아니라 옛 모습 복원 - 시민단체는 많으나 구심점이 없음
신혁균 합덕읍발전협의회장	- 볼거리, 쉴거리, 즐길거리 요망 - 도시기반시설 확충
김기서 합덕읍장	- 지역주민의 관심이 낮음 - 주변지역의 성장으로 인한 빨대효과 우려 - 버그내순례길 조성계획 용역 내용을 반영할 것
임남형 교수	- 인구유입이 어려운 것을 고려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필요 - 주민동참을 높이기 위한 방안
김명선 군의원	- 성지순례객이 중심시가지에 관통할 수 있는 전시관 등 필요 -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할 수 있는 사업 - 주차장 등 확충
인효식 군의원	- 성지순례길의 관광화
박장화 군의원	- 재정확보에 대한 정책의지 필요 - 상위계획과 부합한 계획
표종국 주민	- 합덕읍 발전을 위한 계획이므로 리더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알려주었으면 함
류영호 주민 (선거관리위원장)	- 발표에서 나온 가톨릭에 관한 거리 박물관 조성에 동의하고, 유형과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배웅교 교수	- 앞으로는 자원활용방법에서 유형과 무형의 자원이 같이 활용하여야 함 - 물리적인 발전보다도 매력적인 중심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주민 참여 필요

□ 중간보고회

- ▷ 날 짜 : 2011. 11. 17(목) 15:00 ~ 16:30
- ▷ 장 소 : 당진군청 소회의실
- ▷ 참 석 자 : 군수, 부군수, 실과장, 군의원, 발전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합덕읍장
-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임형빈, 김정하



구 분	내 용
이철환 군수	- 합덕의 발전 동력을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필요
김명선 군의원	- 주민참여방안 모색 - 읍청사 확장 이전 시 부지 변경 요망 - 순례자 유입을 위한 목적 제시 - 전통시장 주변 버스 주차장 필요 - 중심가로의 지중화 사업 등으로 인한 버스 통행
신혁균 발전협의회장	- 순례길~합덕제~쌀과 연계한 발전방안 요망 - 성지순례 기념관 건립 필요
이형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해안도로 개설 - 합덕제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필요
김기서 읍장	- 주말장터의 젊은 층 유입·운영방안 - 중심가로의 도로 확장 및 보도 설치 -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 향상, 주차편의보장, 식당가의 증대와 같은 요소가 필요
장영수 부군수	- 인구유입 방안 - 구합덕성당부근의 역사문화관계획과 연계한 문화관 건립
기획정책실장	- 합덕주민의 단합 필요 및 의식전환
산업경제과장	- 합덕제와 수리박물관 등 물의 테마거리 필요(차별화된 아이템) - 막걸리, 추어탕 등의 먹거리 공간조성 - 합덕의 접근도로 및 순환도로 필요
문화체육과장	- 합심덕적 회복 필요 - 주거지역의 재개발 공간 계획과 주민들의 협조요망
산림축산과장	-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등 검토
평생교육지원과장	-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참여율 제고 방안
건설재난과장	- 주민참여에 관해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자료 부록에 첨부 요망
임봉호 국장	- 전통시장의 버스 주차공간 확보 - 상인회 일원화

□ 최종보고회

- ▷ 날 짜 : 2011. 12. 08(목) 15:00 ~ 16:30
- ▷ 장 소 : 당진군청 군수실
- ▷ 참 석 자 : 이철환 당진군수, 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팀장
- ▷ 참여 연구진 : 윤정미, 이관률, 김정하



내 용

- 사업이 종교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음
 - 성지순례코스는 인정하나 너무 많은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염려
 - 5개년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앞당겨서 실시해야 함(100억 사업과 연계 필요)
 - 기부 유도를 통해 거리나 공원의 상징적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예산지원 받는 것도 한 방향
 - 합덕 주민이 마음을 열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때임
-
- 장터 안 이벤트 공간은 현재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어 발전 가능 함
 - 인도설치를 1차 사업으로 되도록 사업을 3년에 몰아서 하도록 조정하겠음
 - 터미널 매입은 감정평가 후 가격 조정할 예정
 - 인터스파크가 봄에 착공하는데 공원조성 시 조형물이라든가 오픈스페이스 중 하나를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함